

기형 이미지 연구:

‘비정상’과 ‘괴물’이 지닌 형태의 특수성

박평중

상명대학교

I. 서론

II. 기형의 기초 개념: 에티엔/이지도르 조프라 생틸레르의 입장

1. 네 가지 비정상
2. ‘괴물’의 기형학
3. 기형학의 성과

III. 19세기의 기형 사진

1. 단순 비정상 경우
2. 복합 비정상의 경우
3. 과복합 비정상, 혹은 ‘괴물’의 경우: 단일체
4. 과복합 비정상, 혹은 ‘괴물’의 경우: 복합체

IV. 연구의 한계와 결론

I. 서론

이 연구는 기형 이미지를 대상으로 ‘비정상’과 ‘기형’이 지닌 형태의 특수성을 다룬다. 기형은 의학, 생물학, 발생학 등의 일반 과학에서 면밀히 연구해 온 비정상적 유기체를 총칭한다. 에티엔 조프라 생틸레르(Etienne Geoffroy Saint-Hilaire, 1772-1844)는 비정상과 기형의 기초 개념을 정리하여 ‘기형학(Teratology, 畸形學)’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이지도르(Isidore) 조프라 생틸레르는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기형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저서를 남겼다.¹ 그에 따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2012S1A5B5A07036196)

1. 기형학(Teratology)의 기초 개념은 에티엔 조프라 생틸레르(Etienne Geoffroy Saint-Hilaire)가 마련한 것이다. 이지도르는 그의 아들로, 에티엔이 다져놓은 기형학의 개념을 정리했다. 기형학의 탄생을 알렸다고 평가받는 이지도르의 저서는 『인간과 동물에게서 구조의 비정상성에 대한 일반적이고 특수한 역사(Histoire

르면 기형은 다양한 종류의 '비정상'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의 '비정상'이다. 말하자면 '가벼운' 비정상은 생물학적으로 기형에 속하지 않으며, '심각한' 비정상만 기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기형'의 일반적인 의미는 정상인과 '형태'가 다른 기이한 개체를 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형학의 규정에 따른 기형과 일반 용어로서의 기형을 문맥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것이다.

기형학의 정의에 따른 기형의 개념은 축소된 것이지만 고대부터 넓은 의미에서의 기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기형을 묘사한 이미지는 신화나 예술, 혹은 각종 문집과 신학 저술 속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해 왔던 것이다.² 이러한 이미지들은 기형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기형은 때로 초자연적 현상이나 경이로운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反)자연이나 두려운 존재로 묘사되기도 했다. 어쨌든 비록 시대별로 인식의 편차는 있지만 기형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인식은 '비정상'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비정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괴물(monster)'이라는 표현이 가장 널리 쓰였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여전히 기형을 가리키는 통속적인 표현으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기형은 진정 '괴물'인가? 발생학의 연구에 따르면 기형은 일종의 '사고(incident)'다. 즉 본래 '괴물'인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종에 속하는 개체가 모태 내에서 받은 외부 요인에 의해 변형되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이미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형을 '괴물'로 받아들인다. 푸코의 지적대로라면 기형은 의학적인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법적 판단의 문제, 더욱 정확히는 법의학의 규정에 가깝다.³ 그렇게 법의학의 담론은 일상으로 확장되어 기형인은 정상인의 세계에

générale et particulière des anomalies de l'organisation chez l'homme et les animaux)이다. 기형학을 정립한 학자를 언급할 때는 에티엔과 이지도르를 통칭하여 조프랑 생틸레르로 표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지도르의 저서는 그의 부친인 에티엔의 연구에 크게 빛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이 주제에 대한 가장 방대한 연구는 질베르 라스코의 『서양 예술 속의 괴물』이다. Gilbert Lascault, *Le Monstre dans l'art occidental* (Paris: Klincksieck, 1973).

3. 푸코는 18세기 중후반 법의학의 담론 속에 세 유형의 '비정상'이 존재했음을 지적한다. 첫째는 괴물(le monstre), 둘째는 치유불능 자(l'incorrigible), 셋째는 수음하는 자(le masturbateur)다. 여기에서 괴물은 기형인을 가리킨다. Michel Foucault, *Résumé des cours 1970-1982* (Paris: Collège de France, 1989), pp. 73-81.

서 배제된다.

이 연구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형의 고유한 지위를 변론하고자 하는 ‘윤리적인’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기형의 원인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과학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것은 본 연구자의 능력을 한참 넘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학자들의 치밀한 연구를 통해 충분히 밝혀져 있다. 이 연구는 먼저 기형 이미지를 미술사, 사진사 등의 문화사 영역에 소개함으로써 도상학의 대상을 풍부하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기형’이 지닌 문화사적 중요성에 비해 기형 이미지는 문화사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정상인’, 혹은 ‘기형인’이 정상인의 세계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기형인이 배제된 존재라면 기형 이미지 또한 금지된 이미지였던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형 이미지를 소개하려는 시도는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가 편집장으로 참여했던 잡지 『도큐망(Documen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레노(Regnault)의 삽화집 『자연의 탈신』에 실린 기형 이미지를 미술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바타이유는 그 이미지들을 기형학의 맥락에서 유리시키고 ‘신성한(sacré)’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도모하지 못했다.⁴

반대로 이 연구는 기형학의 연구에 의지하여 ‘비정상’과 ‘기형’을 구분하고, 그 사례들을 이미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피상적으로 이해해 왔던 기형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물론 기형에 대한 엄정한 정의는 생물학, 해부학, 발생학 등의 학문적 개념에 의존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기형에 대한 ‘통속적인’ 인식은 형태(form)에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우리는 기형학에서 단순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개체나 심각한 비정상, 즉 기형을 모두 심미적 부정성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기형학의 기형은 선천성 기형을 가리키지만 기형의 일반적 의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불구자나 기이한 외모를 지닌 사람까지 포함한다. 사실 이런 태도는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기형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예를

4. 바타이유는 레노의 삽화집에 실린 기형적 존재가 ‘신성한(sacré)’ 대상이라고 말한다. ‘신성’은 바타이유의 사유를 근간에서부터 지배하는 핵심 용어로 본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과 관계있다.

들면 기형학에서는 기형으로 규정하지 않는 양성인(androgyne)이 고대에는 가장 불길한 '괴물'로 취급받았다. 또한 18세기까지 '괴물'로 간주됐던 개체들 중에는 단순 비정상에 속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필자는 '비정상'과 '기형'을 묘사한 이미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미지는 19세기에 생산된 사진이다. 그 중에서도 기형학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기형에 '과학적으로' 접근한 자료를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비정상'과 '괴물'이 지닌 형태의 특수성을 기술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형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를 바탕으로 '비정상'과 '기형'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

II. 기형의 기초 개념: 에티엔/이지도르 조프라 생틸레르의 입장

1. 네 가지 비정상

기형학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신학적, 미신적 사고와 더불어 신화적 상상력이 기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미노타우로스나 켄타우로스와 같은 신화 속 존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허구적 존재도 실존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예컨대 기형을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16세기의 외과의 앙브르와즈 파레나, 17세기의 철학자 포르투니우스 리체투스의 저술 속에는 생물학적으로 탄생할 수 없는 개체가 실존하는 존재처럼 등장한다. 19세기의 기형학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았다. 우선 여기서는 기형학의 관점만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조프라 생틸레르 부자 이후 가장 체계적으로 기형학의 논점을 정리한 루이 기나르는 『기형학 개설』에서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기형학을 정의한다. “기형학(Tératologie)은 비정상(Anomalie)과 괴물성(Monstruosité)에 대한 학문”⁵이다. 말하자면 기형학은 이 두 개념을 구분하여 다룬다. 그렇다면 '비정상'과 '괴물'

5. 이 책의 원제는 『기형학 개설: 인간과 동물에게서의 비정상과 괴물성』이다. Louis Guinard, *Précis de tératologie: Anomalies et monstruosités chez l'Homme et chez les animaux* (Paris: JB, Baillière, 1893), p. 1. 여기에서 '괴물성'으로 번역한 단어 monstruosité는 본래 '괴물'을 뜻하는 단어 monstre에서 파생했다. 기나르가 지적하고 있듯이 기형과 괴물은 19세기까지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

은 어떻게 다른가? 비정상은 무엇이며, 괴물은 또 무엇인가?

기형을 처음 '비정상'의 범주로 규정한 이는 기형학을 자연과학의 분과학문으로 정립한 조프와 생틸레르다. 그에게 '비정상'은 기형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기형은 다양한 종류의 비정상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의 비정상이다. 말하자면 기형이라 할 수 없는 비정상도 많은 셈이다. 이때 기형은 '괴물(monstre)'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는 비정상이나 '괴물'로 분류할 수 없는 개체들이 있다. 그의 정의에 따라 비정상과 괴물을 구분해 보자.

“비정상은 하나의 개체가 자신이 속한 종(種)이나 나이, 성별의 절대다수와 비교할 때 보여주는 구조의 특수성이나 특별한 유형의 일탈”⁶이다. 그렇다면 '비정상'이라 규정할 수 있는 구조의 특성은 어디까지일까? 나아가 수많은 종류의 비정상 중에서 기형, 즉 '괴물'로 분류할 수 있는 특성은 어떤 것일까? 기형학의 창시자는 '비정상'을 네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질문에 답하려 한다.

첫째, 어떠한 종(種)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조의 조건을 보여주는 개체. 둘째, 하나 혹은 여러 종(種)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자신이 속한 종의 구조적 조건을 보여주지 않는 개체. 셋째, 자신이 속한 종의 구조적 조건을 보여주지만 자신이 속한 나이의 개체들이 지닌 특성을 지니지 않은 개체. 넷째, 자신이 속한 종이나 나이의 개체들이 지닌 구조적 조건을 지녔지만 자신의 성(性)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여주지 않는 개체.⁷

네 번째 유형의 '비정상'은 보통 생물학에서 자웅동체라 부르는 개체로, 인간의 경우 양성인(Hermaphrodite)을 가리킨다. 조프와 생틸레르는 양성을 지닌 개체를 앞의 세 유형과 구분한다. 왜냐하면 자웅동체를 '비정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개체가 유성생식을 하는 종(種)에만 한정되는 반면, 나머지 세 유형은 모든 유기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무성생식을 하는 종의

6. Isidore Geoffroy Saint-Hilaire, *Histoire générale et particulière des anomalies de l'organisation chez l'homme et les animaux* (Paris: JB. Baillière, 1837), p. 30. 저자는 괴물성(monstruosité)이 비정상(anomalie)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한 기형은 괴물을 뜻한다.

7. 앞 책, p. 31. 첫 번째 유형의 예는 돌연변이다. 생물학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다. 두 번째 유형의 예는 다유방증(polymastia) 여성이나 뿔 달린 말 등이다. 세 번째는 수염 난 아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네 번째의 예로는 양성인을 들 수 있다.

경우 자용동체는 '비정상'이 아닌 셈이다. 한편 세 유형의 '비정상'은 각각 그 경계가 모호하여 개체를 구분하고자 할 때 종종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조프와 생틸레르는 이를 다시 네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단순 비정상(*Anomalies simples*). 여기에 해당하는 개체는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보통 변이(變異)라 불린다. 조프와 생틸레르는 이를 두 번째의 단순 비정상과 구분하기 위해 '가벼운' 비정상이라고 덧붙인다. 둘째, 단순 비정상이지만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신체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개체로 불구 상태에 해당한다. 첫 번째 유형에 비하면 심각한 경우로 구조 결함(*Vice de conformation*)⁸을 지닌 개체다. 셋째는 복합 비정상(*Anomalies complexes*). 해부학적 견지에서는 심각한 상태이나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외형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비정상인데, 예를 들면 비장이 오른쪽, 간이 왼쪽에 위치한 경우다. 헤테로탁시(*Hétérotaxies*)라 불린다. 넷째는 과복합 비정상(*Anomalies très-complexes*).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자신이 속한 종과 매우 다른 구조 결함을 지닌 경우다. 생틸레르는 마지막 네 번째의 경우를 진정한 기형으로 규정한다.⁹

이 구분은 현실적인 분류이지만 각 유형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네 번째 유형은 신체 기능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 유형과 크게 다르다. 다시 말해 위의 네 유형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견지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두 번째 유형, 즉 '구조 결함'을 지닌 개체는 생리학의 차원에서 보면 변이와 다르지만 해부학의 관점에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예를 들면 변이로 태어난 몸집 큰 참새와 부리 없이 태어난 참새는 생리학적으로 다르지만 해부학적으로 유사하다) 그런 이유로 어떤 개체에서는 단순 변이에 불과한 비정상이 다른 개체에서는 '불구'일 수 있어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즉 '구조 결함'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차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크지만(변이는 '정상적으로' 신체 기능을 수행하나 '구조 결함'을 지닌 개체는 그렇지 않다.) 해부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종을 구분할 수 없다. 조프와 생

8. 조프와 생틸레르가 *Vice de conformation*이라 규정한 경우는 현대 의학에서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는 이 유형을 진정한 기형과 구분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구조 결함'으로 번역한다.

9. Isidore Geoffroy Saint-Hilaire (1837), pp. 33-34.

텔레르가 이 두 경우를 모두 '단순 비정상'에 포함시켜 기형과 구분하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기형은 발생학적으로 변이나 구조 결함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구'와 '구조 결함', '변이'는 모두 '단순 비정상'에 포함되므로 '복합 비정상'에 속하는 기형과 별 차이가 없는가? 기형을 좀더 엄밀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프와 생틸레르는 이들의 차이를 다시 구분한다.

구조 결함은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신체 기능의 수행이 어려운 상태, 나아가 불구 상태를 가리키는 비정상이다. 신체의 핵심 기관이 약간 변형된 경우로 생리학적, 해부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신체 부분과 관계된다. '불구'는 '구조 결함'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지만 사실은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구조 결함은 불구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불구 또한 구조 결함이 아니다. 불구는 일종의 병리학적 상태로 사고나 구루병, 기타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반면 구조 결함은 거의 대부분 선천적이다. 변이 역시 구조 결함처럼 그리 심각하지 않은 비정상이다. 다만 차이는 후자가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반면 변이는 신체기능이 정상적이어서 불구상태와 전혀 무관하다. 예를 들어 항문폐쇄, 요도하열, 선천성 포경, 언청이는 구조 결함에 속한다. 한편 과도한 근육, 이종의 신장혈관, 신경조직이나 혈관조직의 비정상적 삽입 등은 단순 변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조 결함과 변이 사이에는 어떠한 본질적 차이도 없다. 이들은 모두 신체 기능의 수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부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수롭지 않은 단순 비정상일 뿐이다.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구조 결함의 경우 대부분 성장이 멈추는 데서 비롯되며, 신체 외부 기관과 관계된다는 점이다. 반면 변이의 경우 성장이 멈추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로 혈관이나 신경 계통 등 신체 내부 기관과 관련이 있다.

2. '괴물'의 기형학

과복합 비정상은 신체 기관의 변형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다. 구조 결함과 변이의 차이는 과복합 비정상에 속하는 신체 기관이 형태와 구조, 체적, 위치, 심지어 숫자까지도 심각하게 변형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를 지칭하는 표현이 일상 언어에서 흔히 사용해 온 ‘괴물(monstre)’이다.

조프와 생틸레르는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한다. 그에 따르면 괴물(monstre)의 어원은 ‘보여주다’를 뜻하는 라틴어 동사 ‘몬스트라레(monstrare)’에서 파생된 ‘몬스트룸(monstrum)’이다.¹⁰ 고대의 저술가들이 이 어원에 의존해 온 까닭은 그들이 미신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데, 말하자면 그들은 여전히 ‘괴물’이 미래에 닥쳐 올 불행이나 재난을 알려준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괴물은 흔히 신의 분노를 통고하며, 나아가 재앙을 예고하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결국 불길한 징조를 뜻했다. 한편 18세기의 저술가들에게 괴물은 더 이상 미래를 예견하는 존재가 아니다. 괴물은 단지 생생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새롭고 엉뚱하며 기이한 존재를 뜻했다. 즉 괴물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낯선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런 충격 효과는 외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이 있을 때만 생겨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요컨대 괴물은 항상 외면상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요소를 갖춘 존재를 뜻한다.¹¹ 이 놀라운 요소들은 항상 부정적이다. 예컨대 ‘잔혹한 괴물’이나 ‘추악한 괴물’은 있지만 ‘상냥한 괴물’이나 ‘아름다운 괴물’은 없다. 그것이 ‘괴물’에 따라다니는 시각적 의미다.

그렇다면 ‘괴물’, 즉 기형이 지닌 외적으로 눈에 띄는 놀라운 요소는 어떤 것일까?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기형을 단순 비정상과 구분해 주는 것일까? 조프와 생틸레르는 그 차이가 비정상성이 미치는 ‘난처한 영향’과 ‘심각성’에 있으며, 특히 후자가 전자보다 결정적이라고 단언한다.¹² 그에 비해 변이나 구조 결함이 개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다. 예컨대 구조 결함에 해당하는 항문 폐쇄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태변을 배출하지 못해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신체 기관들은 형태나 구조 모두 정상적이며 간단한 수술로 비정상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요컨대 변이나 구조 결함은 내적 비정상과 외적 비정상 사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국부적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기형의 경우 심

10. 앞 책, p. 41. 다른 학자들은 괴물(monstre)의 어원이 ‘모네스트룸(monestrum)’이며 이 단어는 무언가를 예고한다는 ‘모네레(monere)’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한다.(Louis Guinard, 1쪽) 하지만 조프와 생틸레르는 이 견해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11. 앞 책, p. 42.

12. 앞 책, pp. 47-48.

각하게 신체 내부 기관을 변형시키는 요인은 외적 손상을 수반한다. 이때 외적 손상은 내부 기관의 변형에 대한 징후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심장이나 폐 없이 태어난 기형아의 경우 내부 기관을 검사해 보지 않더라도 외적 징후를 통해 기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일반적인 특징과 더불어 기형의 '심각성'은 변형된 신체 기관의 '중요성'에 있다. 즉 중요한 신체 기관에 변형이 생긴 경우다. 조프와 생틸레르는 신체 기관을 중요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개체 보존에 필수적인 기관, 둘째, 종(種)의 보존에 필수적인 기관, 셋째,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기관.¹³

첫 번째 유형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은 심각하다. 개체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특징들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므로 만약 이와 관련된 비정상적 특징을 보여주는 개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생 동안 그 특징을 보유하게 된다. 심장이나 뇌와 관련된 비정상이 그 예다. 두 번째 유형은 생식기관과 관계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개체는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번식기가 되면 생식기에 눈에 띄는 비정상적 특징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동물의 경우 수컷의 신체 각 부위에 암컷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다. 이는 양성구유 상태의 비정상적 개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의 비정상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므로 앞의 두 유형에 비하면 훨씬 덜 심각하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체는 위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단지 불편할 뿐이다. 이 구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상동(相同)기관의 유무다. 말하자면 구성, 배치,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들이 있을 경우 그 기관의 중요성은 감소한다. 예를 들면 척추, 늑골, 흉골, 손가락, 지골 등 연속으로 이어진 기관들이 그렇다. 이 기관들과 관련된 비정상은 대부분 단순 변이나 구조 결합과 상관있을 뿐 기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¹⁴

따라서 조프와 생틸레르가 기형으로 규정한 비정상은 당연히 첫 번째 유형의 기관과 관계한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기관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비정상, 즉 기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기관 자체가 없

13. 앞 책, p. 55.

14. 앞 책, p. 60.

는 경우다. 하지만 기관이 없는 경우보다도 더 심각한 기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은 기관의 숫자나 위치, 결합상태, 형태, 체적, 구성 등에 변형이 생길 때 발생한다.

우선 기관의 결합에 변형이 생긴 경우를 보자. 생명을 유지하는 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결합의 규칙을 따른다. 예컨대 손가락은 항상 장골과 연결되어 있고, 손은 팔뚝과, 팔은 어깨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래턱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전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깨나 골반과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¹⁵ 이런 결합의 원칙을 염두에 두자면 기관들의 결합상태에 따라 두 종류의 비정상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는 보통 분리되어 있는 기관들이 결합된 경우나 일반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 분리된 경우다. 후자는 전자보다 자주 나타나는 형태로 그리 심각하지 않은 비정상이며, 구조 결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신경이나 혈관 지류가 체간(體幹)에 삽입된 경우가 이런 종류의 결합 이상에 속한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비정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적 변형이 외적 변형으로 이어지지 않아 심각한 비정상은 아니다. 두 번째는 언청이처럼 구조 결합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 경우 또한 심각한 비정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기관의 위치에 변형이 생긴 경우로 이런 상태는 대부분 변이나 구조 결합에 속한다. 장기(臟器)의 위치가 바뀐 경우는 좀더 심각하지만 이 경우 또한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수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기관의 숫자가 달라진 경우는 좀더 복잡하다. 이 유형은 기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와 늘어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체 양 측면에 위치한 두 개의 기관(사지, 눈, 유방 등)이 하나만 있거나 3-4개 있는 경우, 혹은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다. 이처럼 기관 숫자의 추가나 감소는 심각한 기형, 즉 '괴물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관 자체가 아예 없거나 동일 기관이 둘 있는 경우는 기관의 숫자와 관계된 비정상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심장이 아예 없거나 둘 있는 개체는 기형에 속하지만, 손가락 하나가 없거나 둘로 갈라져 육손이 된 경우는 구조 결합에 해당한다.

15. 앞 책, p. 62. 이런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만약 있을 수 있다면 그 개체는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체적의 변형 역시 '괴물성'과는 별 관련이 없다. 난쟁이나 거인의 경우처럼 모든 부분의 체적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면 신체기능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형태의 변형 또한 '괴물성'과 무관하다. 이 경우 약간의 체적 변형을 수반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심각한 비정상성이 아니며 신체기능의 수행에 문제가 없다.

3. 기형학의 성과

조프라 생틸레르의 기형학이 거둔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상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고대부터 '괴물'로 규정해 온 개체의 생물학적 특질을 단순 비정상과 구분했다. 이에 따라 단순 비정상과 기형의 차이 또한 비교적 분명해졌다. 둘째, 그가 진정한 기형으로 규정한 '괴물'은 선천적 요인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그에 따라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생겨난 불구 상태의 개체와 선천적 기형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선천성 기형의 원인을 유형에 따라 상세히 밝혀냄으로써 기형이 본래부터 존재하는 개별적인 종(種)이 아니라 배아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성장이 방해받은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그 개체의 비정상성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¹⁶ 넷째, 기형의 유형을 30가지로 세분화함으로써 기형의 종류를 체계화했다.¹⁷

기형학의 연구결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는 비정상과 괴물에 대한 전통적 사고와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난다. 실제로 신화적, 미신적 사고는 18세기까지도 기형에 대한 관념을 지배하고 있었다. 16세기의 외과의였던 앙브르와즈 파레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당대의 연구자들에 비해 비교적 '과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기형학의 관점에서 보면 비과학적이다. 나아가 그의 견해는 17세기 학자들의 저술과 18세기의 삽화집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¹⁸

16. 에티엔 조프라 생틸레르의 '실험적 기형학(Tératologie expérimentale)'은 본래 조류의 알에 인위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써 비정상적 개체를 얻어내는 실험에서 시작했다.

17. 이지도르 조프라 생틸레르는 기형을 크게 '단순 기형'과 '복합 기형'으로 분류한다. 복합기형은 다시 자생체와 기생체로 구분되며, 삼중체, 사중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18. 예를 들면 포르투니우스 리체투스(Fortunius Licetus)의 『괴물에 관하여(De Monstris)』(1616)나 올리세 알드



도판 1(왼쪽), Am
broise Paré, 라베
나의 괴물, 1573.
도판 2(가운데),
Ulisse Aldrovandi,
코끼리 인간,
1642.
도판 3(오른쪽),
Regnault, 괴물
아이, 1775.

파레는 원인에 따라 13가지로 '괴물'의 유형을 분류한다. “신의 영광, 신의 진노, 정액 과다, 정액 부족, 상상, 자궁협소, 산모의 부적절한 앗음새, 복부충격, 유전적(후천적) 질병, 정액의 부패, 정액의 혼합, 걸인의 육설에 따른 책략, 악령이나 악마.”¹⁹ 이 분류는 그가 '괴물'의 탄생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첫째, 신학적 관념(신의 영광, 신의 진노, 악령이나 악마). 둘째, 미신적 관념(정액 과다, 정액 부족, 정액의 부패, 정액의 혼합, 상상). 셋째, 의학적 사고(자궁협소, 산모의 앗음새, 복부충격, 유전적 혹은 후천적 질병).

그가 제시한 수많은 도판들은 외과의로서의 경험과 목격담에 근거하고 있어 실존하는 기형의 사례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신학적, 미신적 관념에 따른 경우도 많다. 예컨대 신의 진노가 원인이라 규정한 '라베나의 괴물'은 상상의 산물에 가깝다(도판 1). 또한 기형 도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도판을 제시하고 있는 알드로반디의 『괴물의 역사(Monstrorum Historia)』(1642)에는 코끼리 인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과 결합된 혼합체의 모습이 실존하는 '괴물'처럼 등장한다(도판 2). 18세기도 예외는 아니다. 레노가 발간한 삽화집 『자연의 탈선』에는 삼쌍둥이를 비롯하여 양성인 등 다양한 종류의 기형과 함께 무두인

로반디(Ulisse Aldrovandi)의 『괴물의 역사(Monstrorum Historia)』(1642)는 파레가 제시했던 기형의 원인에 대한 관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며, 레노(Regnault)의 삽화집 『자연의 탈선(Les Ecart de la nature)』(1775)에 등장하는 기형 중에는 미확인 '괴물'도 포함되어 있다. 리체투스과 알드로반디는 파레와 달리 '경이로운 존재'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괴물'만을 다룬다.

19. Ambroise Paré, *Des monstres et prodiges*, in *Oeuvres complètes d'Ambroise Paré* (Paris: JB, Baillière, 1573), 1841, p. 802.

과 같은 희귀한 기형, 미확인 괴물이 뒤섞여 있다(도판 3). 이들이 실재하는 기형과 상상의 산물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발생학적으로 기형의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9세기의 기형학은 기형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I. 19세기의 기형 사진

19세기의 기형 이미지는 18세기의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진이 기형 이미지의 생산에 개입하는 것이다. 기형학과 사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탄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²⁰ 즉 기형학은 기형의 원인을 발생학의 관점에서 규명함으로써 상상의 산물을 기형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목격담과 풍문에 의존하여 ‘그림’으로 생산됐던 기형 이미지는 이제 ‘기형의 도상학’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실재하지 않는 기형은 카메라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실존하는 기형만이 이미지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기형 이미지의 제작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기형은 다소 ‘낭만적인’ 관점에서 제작되어 왔다. 예컨대 19세기 이전까지 등장하는 기형인은 ‘포즈’를 취하고 있거나 적절한 배경을 등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기형은 흥미와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한편 의학적 관점에서 제작된 기형사진에는 주관적 감정이 가급적 배제되어 있다. 물론 19세기에도 기형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은 ‘흥미’와 ‘놀라움’이 우선이었다. 처음으로 기형인을 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던 의학자들조차도 그 점을 수긍한다. 기형의 다양한 사례를 처음 사진으로 소개한 의학 잡지를 발간하면서 의사 몽메자(A. de Montméja)와 랑가드(J. Rengade)는 서문에서 “파리 시립병원에서 수용했던 가장 흥미로운 경우들을 알리”고 싶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잡지에 소개한 사진들은 “가장 흥미롭고 진귀한 병리학의 만남”이라고 덧붙인다.²¹ 하지만 이 흥미로운 사례들에 접근하는 태도와 자료

20. 조프와 생틸레르의 기형학 관련 저술은 1837년에 발간되며, 사진술은 1839년에 공표된다.

21. *Revue photographique des Hopitaux de Paris — Bulletin Médical* (Paris: Adrien Delahaye, 1869–1872), Avant-Propos. 이 잡지는 1869년부터 1872년까지 매달 발간되었다.

(document)를 구축하는 방법은 매우 엄정하다. 임상 의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들의 사례를 의학아카데미에서 전문가들에게 보고서와 함께 발표하는데, 핵심적인 방법은 환자의 '외적 증상'을 꼼꼼히 관찰하고 묘사하며 기록하는 것이다. 사진은 여기에서 관찰과 기록의 수단으로 쓰인다. 따라서 사진은 이를 위한 시 각자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이 모두 기형과 관계있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의학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질병이나 병명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흔한 질병도 있다. 이 잡지에 소개된 기형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1. 단순 비정상 경우

조프과 생틸레르가 '단순 비정상'으로 분류한 유형은 '구조 결함'을 지닌 개체다. 뒤플레(M. Duplay) 박사는 1870년 4월 13일 진단한 9세 소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언청이'를 사례로 제시한다(도판 4). 소년의 윗입술은 두 부분으로 갈라져 콧구멍에서부터 아랫입술까지 양 옆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윗입술과 잇몸은 밀착되어 있지 않다. 치아를 사이에 두고 위턱뼈는 좌우로 분리되어 있으며, 악골 사이의 뼈는 커다란 형태로 돌출해 있다. 또한 두 개의 앞니가 엉뚱한 자리에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신체적 결함이나 유전적 질병은 없다.²² 의사는 진단 약 3주 후에 수술을 시행했다.

선천성 기형과 달리 출산 이후의 질병으로 기형에 가까운 모습이 된 사례도 많다. 구루병 때문에 심각하게 체형이 변형된 여인의 경우를 보자(도판 5). 여인의 이름은 마리(Marie)이며 나이는 34세다. 여인의 어머니는 21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마리는 그 중 18번째다. 총 21명의 아이는 유아기에 사망하여 3명만이 살아남았고, 그들은 모두 정상이다. 마리는 14개월부터 걷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 그녀의 사지는 정상이었다. 그런데 7세 무렵 경련 증상이 생기면서 사지가 휘어져 목발 없이는 걷지 못할 정도가 됐다. 그녀의 신장은 130cm, 머리에 서 목까지의 길이는 27cm이다. 외모는 마치 저능아처럼 초라하다. 상체가 하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팔꿈치가 벌어져 둔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른

22. M. Duplay, *Chirurgie: Bec-de lièvre bilatérale compliqué*, in *Revue photographique des Hopitaux de Paris - Bulletin Médical* (Paris: Adrien Delahaye, 1870), pp. 169-170.



도판 4. 언청이, 1870.



도판 5. 구루병, 1870.



도판 6. 다유방증(Polymastia), 1870.

쪽 상박근은 뒤틀어져 있지만 직선이고 뼈는 납작하다. 손가락은 길고 넓다. 왼쪽 상박근은 'S'자로 휘어 있다. 질병의 증상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심각하여 왼쪽 상반신이(60cm) 오른쪽 상반신(66cm)보다 더 짧다. 쇄골 3cm 아래 부분에서 측정한 가슴둘레는 25cm밖에 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하반신이다. 대퇴골은 심각하게 안쪽으로 휘어져 오목한 형태다. 발은 굽고 허벅지의 길이는 25cm이며 종아리는 25.5cm로 다리 전체의 길이가 62cm다. 골반과 엉덩이는 크고 늘어진 형태여서 거의 허벅지를 감출 정도다.²³

신체 기관에 변형이 생긴 경우도 '단순 비정상'에 속한다. 조프와 생틸레르는 '개체 보존'과 관련 없는 기관에 생긴 변형을 '단순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1870년 10월 11일 로랭(Lorain) 박사가 진찰한 24세의 여인이 그 예로 그녀는 4개의 유방을 갖고 있었다(도판 6). 이 사례는 '종(種)의 보존'과 관련한 기관의 숫자에 변형이 생긴 경우로 '다유방증(Polymastie)'이라 불린다. 여인은 다소 왜소한 체격이며, 사팔뜨기이지만 각막 손상은 없다. 외형상으로 드러난 특징은 유방의 수와 형태다. 두 개의 유방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훨씬 작은 크기로 독립되어 있다. 위치 때문에 '겨드랑이 유방'이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다. 네 개의 유방은 사춘기 무렵에 급속히 커졌으며, 월경이 시작되면 두 개의 작은 유방에 통증이 있었다. 여인은 11월 3일 첫아이를 사산했는데

23. Bourneville, "Notes et observations sur quelques maladies puerpérales", in *Revue photographique des Hôpitaux de Paris - Bulletin Médical* (Paris: Adrien Delahaye, 1870), pp. 135-140.

(임신기간은 7개월 반) 임신 기간 동안 왼쪽 작은 유방에 반점이 나타났으며, 네 개의 유방에서는 초유와 유사한 분비물이 나왔다.²⁴

2. 복합 비정상의 경우

조프라 생틸레르가 구분한 네 가지 비정상 중 근본적으로 세 유형과 다른 양성인(Hermaphrodite)의 경우를 보자. 기형학의 창시자는 양성인을 기형으로 분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독특한 유형의 비정상으로 규정하여 매우 상세히 다룬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마리-마들렌 르포르(Marie-Madeleine Lefort) 다(도판 7). 루이 기나르는 이 ‘유명한’ 사람을 처음 진찰했던 베클라르(Béclard) 박사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 경우에 대해 언급한다. 르포르가 16세에 처음 진찰을 받았을 당시의 신장은 150cm, 목은 호리호리하고 후두와 목소리는 청소년의 그것이었다. 유방은 중간 크기 정도로 이미 발육한 상태이며, 유두가 튀어나와 있고 적갈색을 띤 유두 주변에는 체모가 있었다. 윗입술과 턱, 이하선(귀밑샘) 주변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갈색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다리 역시 무수한 긴 털로 덮여 있었다. 생식기는 훨씬 기이하다. 치골 위의 돌기가 체모로 덮여 있고 치골의 반관절은 남성의 경우처럼 늘어져 있다. 아랫부분에는 틈 혹은 외음부와 좁고 잘막한 형태로 뺨은 두 외음순이 있는데 페니스 형태의 클리토리스에서부터 뺨어 나온 체모로 덮여있다. 마리 르포르는 8세부터 월경을 시작했으며, 소변은 클리토리스의 뿌리 부분에 위치한 입구에서 방출된다. 이 사람은 여성이지만 남성의 성향을 느끼며, 질을 열기 위해서는 가벼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베클라르 박사는 언급한다. 결국 그는 마리 르포르가 부수적인 특질로 봐서는 남성이지만 여성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짓는다.²⁵ 하지만 르포르를 진찰했던 다른 의사들의 대부분은 그가 요도하열과 정류고환 때문에 페니스의 발육이 정지된 남성이라고 간주했다.²⁶ 1864년 65세에 촬영한 사진을

24. E. Quinquaud, *Térotologie: Femme tétramaze*, in *Revue photographique des Hopitaux de Paris - Bulletin Médical* (Paris: Adrien Delahaye, 1870), pp. 16-19. 조프라 생틸레르와 루이 기나르는 폴리마스티아를 단순 비정상으로 분류하지만 파리 시립병원의 의사들은 기형으로 보았다.

25. Louis Guinard, *Précis de térotologie: Anomalies et monstruosités chez l'Homme et chez les animaux* (Paris: JB. Baillière, 1893), pp. 294-295.

26. 앞 책, p. 298.



도판 7. 양성인(Hermaphrodite), 1864.



도판 8. 사지부전증(Hémimelia), 1871.



도판 9. 무뇌증(Anencephalia), 1869.

보면 그의 모습은 대머리에다 긴 수염이 있는 남성 노인이다.

3. 과복합 비정상, 혹은 ‘괴물’의 경우: 단일체

조프라 생틸레르는 ‘괴물’을 ‘단일체’와 ‘복합체’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단일체는 하나의 개체에 생긴 과복합 비정상, 복합체는 둘 혹은 그 이상이 결합된 개체에 생긴 과복합 비정상이다.

먼저 단일체의 경우이다. 2년 8개월 된 아이 아돌프는 사지부전증(Hemimelia)에 해당하는 기형이다(도판 8). 아돌프를 진단했던 비야드(F. Villard) 박사는 기형의 외적 증상을 꼼꼼히 관찰, 기록한다. 아이의 부친은 30세, 모친은 26세이며 두 사람 모두 어떠한 병리적 증상도 보이지 않는다. 임신 기간 중에 특기할 만한 사고도 없었다. 다만 모친이 림프체질인데다가, 약간의 신경쇠약 증세가 있었으며, 임신 기간 중에 지속적인 복통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아돌프는 또래의 아이에 비해 신장이 큰 편이고, 머리는 정상적으로 발달했으며, 성격은 밝고 쾌활하며, 언어구사도 정확하다. 문제는 사지다. 비야드 박사는 각각의 사지가 지닌 특성을 매우 꼼꼼하고 정교하게 묘사한다. 수 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묘사를 모두 옮길 수 없으므로 그 중 우측 발에 대한 부분만 간략히 정리해보자. “왼쪽 발의 길이는 37.5cm고 오른쪽 발은 14.5cm다. 오른쪽 발의 생김새는 바다표범의 그것과 비슷하다. 대퇴골은 없거나 퇴화된 상태처럼 보이며 골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

기 어렵다. 왜냐하면 서혜부의²⁷ 차원에서 보면 다리의 기반이 둘레가 35cm인 부드러운 부위로 구성되어 있어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기반에서부터 다리가 점차 좁아져 발 위부분의 둘레는 15cm밖에 되지 않는다. 발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다리의 움직임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²⁸

위의 사례는 외형적인 특징이 가져다주는 기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종종 발생하는 기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생산되어 왔던 기형 이미지 중에는 이와 동일한 유형의 기형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이들이 지닌 ‘비정상성’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다. 반면 출생과 더불어 죽음에 이르는 기형도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비교적 널리 알려진 무뇌증(Anencephaly, 도판 9). 1869년 11월 30일, 28세의 임산부가 무뇌아를 낳았다. 여인은 건강하고 아무런 신체 결함도 없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30세로, 산모와 마찬가지로 정상이다. 근친상간도 아니며 임신 상태는 양호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이 무뇌아의 외형적 특징은 우선 두부가 함몰되어 있다는 점과 뇌가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목도 없다. 5cm 높이의 머리는 어깨 사이에 움푹 처박혀 있어 마치 흥골 위에 턱이 얹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얼굴 피부는 가슴을 지나 마치 목걸이처럼 늘어져 있다. 입술은 크고 귀는 바깥쪽으로 휘어져 거의 어깨까지 닿아있다. 반쯤 열린 눈꺼플 때문에 돌출된 동공이 보이고 아치형 눈썹과 어울려 두꺼비의 형상과 비슷하다.²⁹

아예 머리가 없는 무두인(Acephalia)도 있다(도판 10). 이 아이는 1872년 2월 10일 프랑스 앙제(Angers)에서 태어났다. 산모는 먼저 정상적인 여아를 낳은 후 곧바로 이 기형아를 출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그리파(H. Gripat)박사는 출

27. 아랫배와 인접한 대퇴부의 주변

28. F. Villard, *Téatologie: Arrêt de développement multiples : Hémiphocomélie*, in *Revue photographique des Hopitaux de Paris – Bulletin Médical* (Paris: Adrien Delahaye, 1871), p. 166. 오른발의 생김새가 바다표범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진단은 이 기형이 지닌 특수성을 환기시킨다. 비야드 박사는 아돌프의 경우가 헤미멜리아(Hemimelia)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수중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포코멜리아(Phocomelia)의 특성 또한 갖고 있다고 본다. 포코멜리아는 조프라 생틸레르가 제안한 용어로 어원을 바다표범(phoque)에서 끌어왔다. 그는 포코멜리아와 헤미멜리아를 명확히 구분한다. Isidore Geoffroy Saint-Hilaire (1837), pp. 208–215.

29. *Téatologie: Anencéphalie*, in *Revue photographique des Hopitaux de Paris – Bulletin Médical* (Paris: Adrien Delahaye, 1870), pp. 31–33.

산 과정과 산모의 임신 상태를 꼼꼼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산모는 구루병이 있으며 골반이 작다. 출산은 임신 7개월 정도의 조산이었는데, 결혼 3주 만에 떠나버린 남편 때문에 임신기간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다. 다른 질병을 앓은 적은 없다. 먼저 나온 여아의 몸무게는 약 1kg 정도고, 2-3분 후에 문제의 아이가 나왔다. 출산을 지켜본 산파는 아이의 다리가 먼저 나오자 경부를 끌어냈으며, 아이는 두 다리를 약간 움직인 후 곧바로 죽었다고 진술했다. 탯줄은 두껍고 울퉁불퉁했으며 길이는 25-28cm가량이었다. 아이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배꼽 아래쪽은 정상이지만 윗부분은 쭈글쭈글한 자루 모양을 하고 있다. 놀랍게도 머리는 없다. 전체 길이는 25cm로 배꼽 아래 부분은 12cm, 위쪽은 13cm이며, 중앙 부분의 둘레는 20cm다.

그리고 박사는 이 무두인의 형태를 수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해 보자. 가운데 부분의 치골 앞에는 둥근 돌출부가 음낭 형태의 회음부 쪽을 향하고 있는데 음경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원통형 돌출부가 그 위에 있다. 두 다리는 굽은 외반족(外反足)³⁰의 형태로 발목 부분이 바깥으로 뒤집혀 있다. 또한 척골과 지골이 앞으로 세워진 형태이며, 각 다리의 축은 위쪽 바깥으로 열려 둔각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주상골은 심하게 튀어나와 있다. 탯줄 위쪽은 거대한 자루 모양으로 왼쪽의 부피가 오른쪽보다 더 크다. 중앙부분의 주름은 배꼽 위쪽 5.5cm 지점에 위치한 수포까지 이어져 있다.³¹

4. 과복합 비정상, 혹은 '괴물'의 경우: 복합체

닥터 로뱅(Ch. Robin)이 복합 기형으로 소개한 사례는 조프라 생틸레르가 이중체(monstres doubles polyméliens)로 분류한 유형이다.³² 프랑스의 이수둔(Issoudun)에서 출생한 10세의 이 여아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신체구조를 갖고 있다(도판 11). 눈에 띄는 비정상(자생체와 기생체의 복합구조)

30. 발의 안쪽이 내려앉고 바깥쪽이 솟아오른 발의 변형.

31. H. Gripald, *Térotologie: Notes sur un acéphale humain*, in *Revue photographique des Hopitiaux de Paris - Bulletin Médical* (Paris: Adrien Delahaye, 1872), pp. 386-392.

32. 중합체(polymélien) 중에는 이중체, 삼중체, 심지어는 사중체까지도 있을 수 있다. 중합체를 이룬 각 개체는 동일한 종에 속한다. 상이한 종이 결합한 혼합체는 수태기간이 다를 경우 생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상의 산물이다.



도판 10. 무두인(Acephalia), 1872.



도판 11. 복합 이중체(monstres doubles polyméliens), 1869.



도판 12. 머리가 하나인 이중체(monstre double monocéphalien), 1870.

외에 특히 생식기의 배치는 의학 아카데미 회원 중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했다. 외형상의 특징을 보면 정상적인 항문 바로 옆에 폐색된 제2의 항문의 흔적이 남아있다.(포유류나 조류의 경우 2개의 항문을 가진 기형이 존재한다.) 또한 두 발은 정상적으로 발달해 있지만 안짱다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상적인 두 다리 사이에 위치한 또 다른 두 다리다. 그 중 하나는 크기가 약간 작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회음부에 삽입되어 그루터기 형태를 띠고 있으며 관절과 발이 아예 없다. 한편 생식기는 완전하게 형성된 두 개의 외음부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은 뒷부분에 비해 형태가 훨씬 크며, 각각 하나씩의 요도를 갖고 있어 소변이 동시에 두 부분에서 배출된다. 따라서 아이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는 직경이 넓은 요강이 필요하다고 로뱅 박사는 덧붙인다. 이 여아를 최초로 검진했던 벨기에 의사들에 따르면 아이의 골반 뼈는 4개다.³³

다음은 머리가 하나인 이중체(monstre double monocéphalien, 도판 12). 이 남

33. Ch. Robin, *Cas de tératologie*, in *Revue photographique des Hopitaux de Paris — Bulletin Médical* (Paris: Adrien Delahaye, 1869), pp. 113–114.

되어 있다. 뺨줄은 복부 하단에서부터 중앙 사이에 위치해 있다. 사지는 멀쩡하며 크기는 서로 비슷하다. 가장 눈에 띄는 비정상상은 경부(頸部)에 있다. 머리 하나가 두 개의 몸 위에 얹혀 있으며, 얼굴은 측면을 향해 돌아가 있다. 또한 구개(口蓋) 상단부위가 갈라져 언청이의 형태다. 정상적으로 형성된 두 개의 귀는 얼굴 양 쪽에 각각 자리 잡고 있으며, 후두부에는 또 다른 두 귀가 변형된 형태로 나란히 위치해 있다. 뇌는 없다.³⁴

IV. 연구의 한계와 결론

우리는 앞에서 '비정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기형이 지닌 형태의 특수성을 기형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기형은 '심각한 비정상'에 속하며 나머지는 구조결함이나 '단순 비정상'에 해당한다. 17세기까지 기형은 두려움이나 경이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 바타이유의 표현을 빌자면 '신성한' 대상이었다. 기형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시작되면서 기형은 두려운 존재에서 낯설고 기이한 존재, 그저 '놀라운' 존재로 인식된다. 이런 인식은 기형이 지닌 생물학적 특성에서 연유하며, 결국 그것이 외적 형태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의학사진이 기형학의 차원에서 지니는 의미는 각별하다. 그림으로 제작된 기형 이미지는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감정'이 개입해 있으며, 나아가 상상적인 존재를 실존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마저 있었다. 사진은 그런 오류를 '쉽게' 바로잡았다. 이제 기형의 도상학에 상상의 존재는 들어올 수 없게 됐다. 기형 이미지는 인류 문화사에서 끊임없이 출몰해 오면서 많은 논란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기형은 단지 생물학, 의학 등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만 주요한 연구대상이었다. 만약 기형이 '형태(form)'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형이 불러일으키는 놀라움과 기이함이 심미적 부정성의 결과라면 미학, 미술사적 관점에서의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런 점에서 시론(試論)의 성격을 갖는다. 이 논문이 지닌 자명한 한계 역시 그 점에서 비롯된다.

우선 이 연구는 기형학의 다양한 견해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 논문

34. *Térotologie: Monstre double monocéphalien*, in *Revue photographique des Hopitaux de Paris — Bulletin Médical* (Paris: Adrien Delahaye, 1870), p. 97.

에서는 기형학을 처음 정립한 조프와 생틸레르의 이론만 소개했지만 그 외에도 ‘비정상’과 ‘괴물’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또한 학문으로서의 기형학이 생겨나기 이전 16-17세기의 기형이론을 소개하지 못했다. 특히 앙브르와즈 파레와 포르투니우스 리체투스, 올리세 알드로반디가 남긴 기형에 관한 저술은 19세기 이전까지의 기형에 대한 관념을 알려주는 중요한 텍스트다. 더욱이 그들의 저술에는 매우 풍부한 도판이 실려 있어 기형의 도상학이라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자료다. 또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 기형학의 기초이론을 정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기형에 대한 문화인류학적인 견해를 거의 다루지 못했다. 에르네스트 마르탱(Ernest Martin)의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괴물의 역사』나 최근에 출간된 올리비에 루(Olivier Roux)의 『괴물: 기원에서부터 현재까지 기형학의 역사』는 이런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면의 한계로 다루지 못한 다른 주요 논점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주제어

기형(deformity), 기형학(teratology), 비정상(abnormal), 괴물(monster), 무두인(acephalia), 양성인(hermaphrodite), 무뇌증(anencephaly)

투고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일	2013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12일
-----	---------------	-----	--------------	-------	---------------

참고문헌

- Ancet, Pierre. *Le statut du monstre dans la tératologie d'Etienne et Isidore Geoffroy Saint-Hilaire*, in *Monstre et imaginaire social: Approches historiques*. Paris: Créaphis, 2007.
- Atherton, Catherine. *Monsters and Monstrousness in Greek and Roman Culture*. Paris: Levante, 1998.
- Bataille, Georges. *Les écarts de la nature*, in *Documents 2*. Paris, 1930.
- Bloch, Raymond. *Les prodiges dans l'Antiquité classique*. Paris: PUF, coll. Mythes et religions, 1963.
- Daston, Lorraine J. and Park, Katharine. *Wonders and the order of nature*. New York: Zone, 1998.
- Foucault, Michel. *Les Anormaux: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4-1975*. Paris: Seuil et Gallimard, 1999.
- Geoffroy Saint-Hilaire, Isidore. *Histoire générale et particulière des anomalies de l'organisation chez l'homme et les animaux*. Paris: JB. Baillièrè, 1837.
- Guinard, Louis. *Précis de tératologie: Anomalies et monstruosités chez l'Homme et chez les animaux*. Paris: JB. Baillièrè, 1893.
- Harent, Sophie. *Beautés monstres, curiosités, prodiges, phénomènes*. Paris: Somogy éditions d'art, 2009.
- Hunter, Jack. *Freak Babylon: An Illustrated history of teratology & freakshows*. London: Creation Books, 2005.
- Ibrahim, Annie. *Qu'est-ce-qu'un monstre?* Paris: PUF, coll. <Débats philosophiques>, 2005.
- Lascault, Gilbert. *Le Monstre dans l'art occidental*. Paris: Klincksieck, 1973.
- Licetus, Fortunius. *De monstris*. 1616, Nabu Press, 2011.
- Marie Leroi, Armand. *Mutants: On genetic variety and the human body*. London: Penguin Books, 2003.
- Martin, Ernest. *Histoire des monstres depuis l'antiquité à nos jours*. Paris: G. Reinwald et Cie, 1880.
- Menestier, Martin. *Les monstres: Histoire encyclopédique des phénomènes humains*. Paris: Le Cherche Midi, 2007.
- Mütter Museum: *Historic medical photographs*. New York: Blast Books, 2007.

- Paré, Ambroise. *Des monstres et prodiges*, in *OEuvres complètes d'Ambroise Paré*. Paris: JB. Baillière, 1573, 1841.
- Purcell, Rosamond. *Special cases: Natural anomalies and historical monsters*. New York: Chronicle Books, 1997.
- Regnault, Sr et De. *Les écarts de la nature: Recueil des principales monstruosités que la nature produit dans le monde animal. Peints d'après nature. 40 planches gravées*. Paris, 1775.
- Revue photographique des Hopitaux de Paris*. Paris: Adrien Delahaye, 1869–1872.
- Roux, Olivier. *Monstres: Une histoire générale de la tératologie des origines à nos jours*. Paris: CNRS, 2008.
- Spencer, Rowena. *Conjoined twins: Developmental malformations and clinical implication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4.
- Wilson, Dudley. *Signs and Portents: Monstrous Births from the Middle Age to the Enlightenm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3.
- Wolff, Etienne. *La science des monstres*. Paris: Gallimard, 1948.

Abstract

A Study on Image of Deformity: Speciality of the Form of “Abnormal” and “Monster”

Pyungjong Park

This study deals with cultural meaning of the “abnormal” and the “monster” analysing images of deformity. “Deformity” indicate all abnormal organism that have studied the general science like biology, medicine, embryology, etc. Etienne Geoffroy Saint-Hilaire and Isidore, his son, founded the teratology, providing fundamentals concepts on the abnormal and the monster. According to him, a deformity signifies the serious abnormal being among four abnormal types.

In fact, the problem of “deformity” has been seriously studied in the sphere of the natural science, but not in the sphere of the human science, especially like esthetic, art history, etc. So, this study aims above all at introduce the question of deformity in the sphere of cultural history, and enrich objects of iconology which are materials of art history or history of photography.

Medicals photographs produced in 19th century are very important from a point of view of teratology: images of deformity produced by picture were not corrects ; there are some fictional being among these images. But the photography rectified these errors. Henceforward fictional being was excluded from iconology of deformity.